

## 전남으로 번진 코로나19...전남도청 사무실 폐쇄

광주 확진자 접촉 50대 공무원 양성 판정...3개 부서 직원 격리  
2차 확산 12일만에 광주 확진자 100명...확산세 장기화 우려

코로나 19 사태 이후 최초로 자치단체 청사 사무실이 폐쇄됐다. 전남도청 직원들이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전남도가 해당 부서 전원을 조기 퇴근시켜 자가격리하도록 하고 해당 부서 사무실 방역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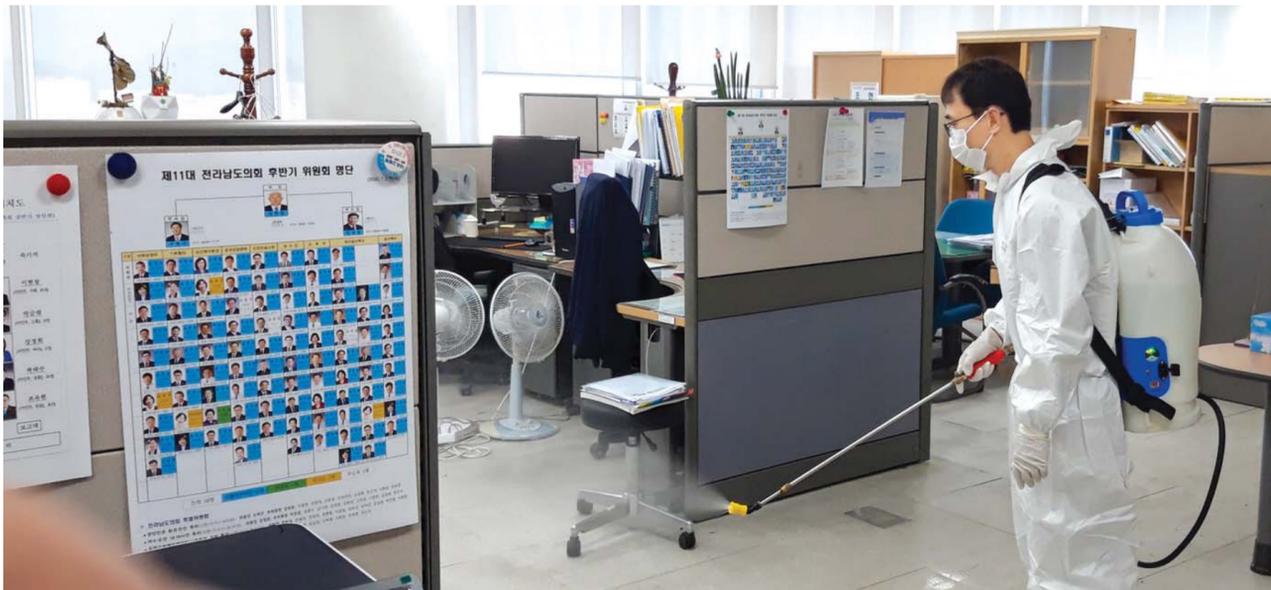
방역당국은 광주에서 사찰·교회·방문판매업체·사우나·고시학원 등 소규모 집단감염이 잇따르면서 인접해있는 전남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자칫 걷잡을 수 없이 확진자가 늘어나는 등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와 전남도의 긴장도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광주지역 확진자도 2차 확산이 시작된 지난달 27일 이후 12일 새 100명째를 기록하는 등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다. <관련기사 2, 3, 6면>

8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 30번 확진자는 영암군 거주 50대 남성 공무원으로,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광주의 117번 확진자가 발생한 고시학원 야간반에서 함께 강의를 들었다. 이후 3일부터 6일까지 자신의 근무지인 금정면사무소, 인근 음식점, 처가, 골프장, 커피숍, 목욕탕 등을 방문한 뒤 7일부터 발열, 몸살, 가래 등의 증상이 있어 영암군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30번 확진자와 전남도청 세정과·일자리정책과·농업정책과 등 3개 부서 직원이 함께 골프를 치는 등 밀착접촉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전남도는 이들 3개 부서 직원 전원을 조기 퇴근시키고 자가격리조치했다. 방역 당국은 접촉 직원들에 대해 진단 검사를 시행하고 해당 부서 사무실에서 방역을 실시했다.

전남도는 30번 확진자를 강진의료원에 격리 입원 조치한데 이어 배우자와 아들에 대한 검사를 의뢰했다. 또 전남도 신속대응팀, 영암군 역학조사반 등이 심층 역학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30번 확진자가 찾은 시설 전체에 대한 방역을 완료했다.

전남도는 이날 긴급 발표문을 내고 "추가로 확인되는 접촉자에 대해서도 신속히 격리 조치해 지역사회 전파를 막는데 총력을 다하겠다"며 "도는 물론 시·군 공무원 모두 일체의 소모임이나 퇴근 후 활동 등을 자제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동일 생활권인 광주와 전남의 지역감염이 무서운 속도로 확산되고 있어 매우 엄중한 대처가 필요한 때"라며 "다중이용시설 출입과 소모임, 회식 등 외부활동을 자제하고, 실내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전남은 인구의 22.6%가 65세 고령자라는 점에서



8일 오후 전남도 방역팀이 코로나 19 전남 30번 확진자(영암 금정면사무소)와 접촉한 도청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을 소독하고 있다. /김형호 기자 khh@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광주에서도 소규모 집단감염이 계속되면서 이날 오후 6시 기준 4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는 133명을 기록했다. 지난달 27일 이후 12일 동안 광주에서만 100명이 발생했으며, 7일과 8일 이틀동안 광주고시학원 수강생이 5명이나 추가되고, SM사우나

관련 확진자도 늘어나는 등 여전히 확산세다. 광주에선 코로나19 확진자나 접촉자가 다녀간 건물도 잇따라 폐쇄되고 있다.

광주 서구 치평동 삼성화재 상무사육은 방역 소독 작업을 마치고 이날부터 사흘간 폐쇄됐다. 건물 근무자인 광주 129번 환자가 지난 7일 확진 판정을 받은 데 따른 조

치다. 129번 환자는 지난달 27일과 28일 오전 다른 확진자가 방문했던 SM사우나를 다녀갔고 지난 6일 직장에 출근했다. 확진자와 같은 층 직원들은 회사로부터 코로나19 검사 및 오는 20일까지 2주간 재택근무를 지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건물 14층에 있는 광주시 상수도 사업본부 직원

70여명도 전원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으며 사흘간 재택근무에 들어갔다. 광주 북구 북동 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도 직원 가족이 확진돼 4층 실업급여 담당 사무실을 폐쇄하고 직원들을 격리 조치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윤석열 검언유착 사건 지휘 손뼉다...“독립적 수사본부 구성”

추미에 장관 수사지휘 수용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의 최측근이 연루된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 수사에서 손을 떼고 수사 결과만 보고받기로 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포함한 독립적 수사본부를 구성하고 김영대 서울고검장이 수사를 지휘하도록 했다.

대검찰청은 윤 총장이 이같이 결정해 추미에 법무부장관에게 건의했다고 8일 밝혔다.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지 몇새 만에 나온 입장이다.

대검은 윤 총장의 이 같은 결정이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존중하고 검찰 내·외부의 의견을 고려한 것"이라며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하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지난 2일 윤 총장에게 검언유착 의혹 수사의 적정성을 따지는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중단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대한 수사 독립성 보장을 지시했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은 당초 예정된 전문가문단 소집은 중단했지만 지휘 수용 여부를 뚜렷하게 밝히지 않아 추 장관과 윤 총장 사이에 긴장감이 이어져 왔다. 대검이 지난 6일 추 장관의 수사지휘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검사장 회의 결과만 공개하면서 윤 총장이 지휘 수용을 거부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왔다. 하지만 윤 총장이 이날 검찰총장의 사건 지휘 배제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독립성 보장, 전문가문단 소집 중단 등 추 장관의 수사지휘를 대부분 수용하면서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

려는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검언유착' 사건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올해 초 신라전 의혹을 취재하면서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과 공모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버리를 제보하라고 협박했다는 의혹이 끝자다. /연합뉴스

사랑과 감사의 66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0]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 초유의 부동산 정국...여권, 분노한 민심에 비상조치

당정청 "한 채 빼고 다 팔라"  
광주·전남 의원 등 매각 나서

문제인 정부의 집값 안정 정책이 때아닌 '정치권 부동산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8일 문제로 지적된 서울 반포 아파트를 매각하겠다고 밝히는 등 당정청이 다주택을 소유한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적극적인 처분을 요구하고 나섰다.

<관련기사 4면>

특히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18명 가운데 다주택자로 분류되는 6명 가운데 상당수도 당의 방침에 따라 조만간

불필요한 집을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고위공직자의 주택 보유 실태를 파악한 뒤 다주택자는 하루 빨리 매각하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고위공직자가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으면 어떤 정책을 내놔도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태연 원내대표는 다주택 소유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주택 서약' 이행을 빨리해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부동산 입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한 중부세 강화 방안 등을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에따라 광주·전남지역 다주택자의 원인 김희재(여수) 의원은 전세 계약자와의 계약 문제를 해결하면 조만간 집을 처분하고,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도 1채만 남기고 모든 집을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또 주철현(여수갑)·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도 당의 뜻에 따라 집 처분에 나섰다.

조오섭 의원(북구갑)은 상속받은 어머니의 담양 집 지분(33%)을 포기할 계획이다. 다만, 양향자(서구을) 의원은 현재 2채의 집에 시부모와 남편이 각각 살고있고 있어 집 매각에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2weeks  
고함양 고도도 레티놀 농가질  
필자 주름 줄임 단 2주만에 개선  
IOPE LAB

### 슈퍼레티놀 단 2주만에 주름잡다

| 아이오페 레티놀 엑스퍼트 0.1% |

주름을 위한 당신의 노력을, 얼마나 효과가 있었나요?  
이제, 주름보다 강한 슈퍼레티놀로  
확실한 주름 개선 효과를 느껴보세요

레티놀은 아이오페

# IOPE

\*인·40~50세 성인 여성(대상) 2019.08.16~10.17 8주간(1회)피부임상연구센터  
고객상담실 080-023-5454 | www.iope.com